예수 소속의 기준

(요15:18~27)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21.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 소속의 기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소속이 되었는지 세상에 소속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한번 오늘 아침에 찾아보고,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자는 얘기지요.

이 소속감의 문제를 최근에 아주 강력하게 중요한 것으로 치켜세우고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임상심리학자 타라 브렉이라고 하는 분이 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임상심리학에 불교의 명상을 접목시키는데, 이분은 불교에 귀의하는 것을 한 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안전감과 소속감의 내적 자원 발견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왜 나의 종교로 삼게 되느냐?
팔만대장경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안전감과 소속감을 내 안에서 찾기 위해서, 내 안에 근거된 것으로 소속감을 찾고 안전감을 찾기 위해서, 소속감과 안전감을 내 안에 근거시키기 위해서 불교에 귀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아주 야심이 만만해요.
같은 책에서, 불교를 통째로 소속감의 문제로 파악을 한 뒤에, 실천적인 면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소속감의 문제다'라고 천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과 보낸 후에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었다.
'오늘날 가장 큰 재앙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마더 테레사의 말을 인용한 거죠.
그러면서 타라 브렉이 하는 말은 '이런 소속감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유행병처럼 되었다', 즉 이렇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유행병처럼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속되기를 애타게 열망하면서도 스스로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니까 이분의 해결책은 '왜 그렇게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치 없는 자로 느껴서 스스로 소속감에서 이탈되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나 스스로에게 먼저 받아들여라.'
즉, 자꾸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부족하다고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소속된 것 아닙니까?
그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소속감의 문제에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다면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구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서 세상에도 소속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속된 것이고, 예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소속을 발견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속감의 기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되었지요?'라는 질문에 다 '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겉으로 드러난 증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자체가 세상에 속해버렸어요, 세상에 속했다는 것보다는 세상에 정복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local church, ㅇㅇ교회 ㅇㅇ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께 소속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속되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기준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소속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했나, 안 속했나?'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지금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새 계명을 얘기해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시고 오늘 15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에 근거돼서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해내는 기준을 세 가지 포인트에서 한번 얘기해봅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께 속하고 어떤 자가 세상에 속했는가?
나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소속감의 문제를 첫 번째 기준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있다고 하는 소속감의 증거는 내가 어디에 속해있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신

분의식과 정체감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신분의식.
그리고 이러한 신분의식은 자부심이나 안전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ㅇㅇ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ㅇㅇ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소속감, 내게 안전감을 주고 자부심을 주고 또 나에게 신분의식과 정체의식을 주고 있는 그러한 소속이 인간사회 안에 있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러한 의식이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직원이다' '나는 어느 학교의 학생이다' '나는 누구의 아내다, 남편이다, 어느 집안의 일원이다'
이러한 소속의식 전체가 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은 어떤 소속감을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 너머에 소속감을 갖고 있습니다.
공생애가 십자가에서 완결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써 우리의 구주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바로 우편에 앉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면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천국만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끌고 가버리십니다.
이 영역에 속해있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의 영역에 속해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있는가? 십자가 너머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영역, 예수님만이 만들어놓으신 그 영역,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합당한 그 영역,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이 십자가 너머의 세상, 예수님께서 만들어놓으신 이 영역과 공간에 있으면서 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의 소속은 인간세상 바깥에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세상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간사회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 가정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감은 반드시 신분의식과 내 정체감과 안전감을 연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안전감을 느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가 잘 되어가고 있으니 안전감을 느낀다면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이런 건 다 뭐냐?
이건 소속이 아니에요.
내 소속은 십자가 너머에 인간세상 바깥의 주님께서 만드신 그 영역에 있고, 그리고 이 인간사회에서 조직이나 단체들은 다 내 소속이 아니라 내가 파견 나와 있는 곳입니다, 일하러 나와 있는 곳입니다.
일하러 나와 있는 곳을, 파견 나와 있는 곳을 소속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속해있는 단체나 조직을 강화시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해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속해있는 인간사회의 조직, 대한민국이나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우리 가정, 이것을 확고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뭡니까?
가치에 있습니다, 가치.
첫 번째는 내게 정체의식과 신분의식과 안전감을 가져다주는 소속의 문제, 이렇게 소속의 문제에 걸려있는 첫 번째가 소속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감.
소속과 연관된 두 번째 문제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라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이 비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 이건 필연적인 얘기입니다.

가치가 바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에게 만족이 생깁니다.

만족이 생겨서, 우리 마음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배부르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유지될 때 행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사회에서 인간들이 합의를 본 가치가 있어요.

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이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자! 이겁니다.

그게 바로 부귀영화(富貴榮華)입니다.

부(富)는 돈과 재물 재산 같은 겁니다.

이게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원래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가 있었다면 주님께서도 그걸 추구하셨겠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자고.

이게 바로 죄악 된 인간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들의 악의 시작이 자기들 스스로 가치 있는 걸 결정한 것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 깜짝 놀라서 급하게 다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그 다음 귀(貴)는 벼슬자리, 높은 자리, 회장 자리, 부장 자리, 승진, 이런 것들이 다 인간세상이 정한 가치입니다.

영화(榮華),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인기, 출세, 이런 것들이 가치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만족하고 채워지고 기뻐집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채웁니까?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두고 있고, 십자가 너머의 영역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방향을 따라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아버지와 승천해 계시는 주님을 바로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두면서 믿음 안에서 현실화합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한 것처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믿음으로써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천국과 하나님아버지와 승천하신 주님을 실제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마음이 만족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주님께서 보좌까지 이어지는 그 영역에 만들어놓으신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언제나 내 기쁨은 십자가 너머에서 내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저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살다보면 때때로 만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만족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내 만족은 십자가 너머에서 믿음 안에서 천국을 현실화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자녀 됨을 현실화하면서 끝나야 됩니다.
기쁨과 만족은 거기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의 기준은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감, 두 번째는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방식 lifestyle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lifestyle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이 비어있고, 이 비어있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치를 어차피 인간세상 속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타성에서 내 마음을 채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도 빈민굴에 들어가서 구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신학박사인 슈바이처의 신학을 자유주의신학이라고 보고 있고, 그분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스님들도 이타적으로 살 수 있고, 무종교인도 이타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회 안에 있는 이타성 안에서 자기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면에서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이타적으로 삽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사랑을 내가 완성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결실 맺혀지게 되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가족부터 친구 이웃,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나무에 흐르는 진액인데, 그 진액이 가지인 나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끔 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이타성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종교다원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이타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 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사람은 그런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자, 예수님께 속했음의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너머의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너머의 영역은 어떻게 만족을 추구합니까?

믿음 안에서 천국과 하나님을 현실화함으로써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파견되어 살아가고 오늘도 파견되는 겁니다.

파견돼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만남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으로부터 악한 사람까지, 일본사람부터 중국사람 미국사람까지, 이북의 김정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살려두고 계십니다.

그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하나님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완성시켜드릴 수 있고 열매 맺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속함이 내게서 발견될 때에 복음의 모든 은총은 현실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소속감과 가치와 삶의 방식, 이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소속의 문제가 온전히 깨달아져서 세상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